

추석 명절 가정에배안

1. 추석 명절 가정에배 순서

목도 다같이 목도하시면서 추석명절 가정에배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 588장 다같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 가족 중
----	-------	------------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을 무사히 이겨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두가 주안에게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는 풍요와 기쁨의 사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신명기 16:13-15(구p.287) 인도자
------	----------------------------	-----------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설교 은혜를 살려내라 인도자
찬송 찬 570장 다같이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 후렴 |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칠을 떠려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축복과 다짐 가족과 함께
--------	-------	--------------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권면하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주기도문 다같이
------	-------	-----------

2. 설교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막을 들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죠. 먹을 것을 엄청 수확해놓고, 오히려 그것을 먹지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광야에서 속죄제, 빈제, 소제, 화제 제사를 드립니다. 좀 이상하죠. 풍성한 수확을 얻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불꽃놀이, 가요제, 탈춤축제, 잔치하면서 절기를 지키면 좋지 않을까요? 굳이 광야로 나가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내려놓아야 얻는 것이 있고, 내게서 멀어져야 보이는 것이 있죠. 내게서 사라져야 생기고, 내게서 떠나야 찾아오고, 잃어버려야 소중해지고, 내게서 모자라야 귀중해지고, 내게서 비워내야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 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막절에 광야로 나감으로, 이 수확, 이 결실을 멀리하면, 은혜가 가까워지죠. 광야로 나가서 이 결실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면, 은혜가 보이죠. 광야로 나가서 이 결실에서 떠나면, 은혜가 찾아오죠. 광야로 나가서 이 결실을 내게서 모자라게 하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죠. 광야로 나가서 이 결실을 비워내면, 은혜가 채워지죠. 그 결과 내 영혼은 살찌고 내 삶은 풍요롭게 되고, 내 인생은 복되게 됩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이방인, 고아, 노비, 나그네, 과부와 함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왜 하필, 고아, 이방인, 노비, 과부, 나그네들과 함께 지켰는가? 이전에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아버지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 거처가 없는 나그네, 주인 없는 종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고, 거주지가 있고,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삶에 생생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이방인, 고아, 나그네, 과부, 노비들과 함께 지켰습니다.

또한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서 나가서 전도서를 읽었어요.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 지금 이 열매, 이 수확물 얼마나 오랜 세월, 피땀 흘려서 모으고 얻은 것입니까? 오늘 이날까지 수고와 정성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수확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수확물, 이 열매, 이 풍성한 결실,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수확물, 열매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학벌, 고상한 윤리, 많은 재산, 로마 시민권, 이중국적, 다 초막절의 풍성함이요, 수확이죠. 그런데 다 멀리하죠. 떼어내죠. 비워내요. 비우죠. 멀리하고 비우고 떼어낸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은 자기를 위하여 계속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돼요. 거름이 되면 땅을 비옥하게 해서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죠. 이처럼 초막절의 풍성한 수확, 열매는 배설물처럼 여기저기 뿌려질 때만 가치가 있어요. 바울은 배설물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 배설물을 멀리하고, 떼어내고, 비워내고, 여기저기 뿌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끌어올 수 있다, 은혜를 살려내서 은혜를 끌어오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은혜를 살려내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로, 그래서 은혜의 가치와 힘을 아는 자이기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뜻 깊은 추석 명절 되세요!

도원교회